

LG필립스LCD, 영업이익 “급감”

1/4분기 520억원으로 84.4% 감소 ... LCD 패널가격 하락이 원인

LG필립스LCD가 2006년 1/4분기 매출이 2조4710억원에 그쳐 2004년 3/4분기 이후 6분기만에 처음으로 성장세가 꺾였다.

영업이익도 520억원을 머물러 2005년 1/4분기 이후 계속된 상승흐름이 주춤했다.

LG필립스LCD는 2006년 1/4분기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매출액이 2조4710억원, 영업이익이 520억원, EBITDA(법인세, 이자 및 감가상각비 차감 이전 이익)가 6700억원, 당기순이익이 480억원을 각각 기록했다고 4월11일 발표했다.

1/4분기 영업이익은 2005년 4/4분기 3340억원에 비해 84.4% 감소했으며, 매출액과 순이익도 전분기 2조9630억원, 3280억원에 비해 각각 16.6%, 85.4% 줄었다.

다만, 2005년 1/4분기와 비교하면 매출액은 당시 2조640억원에 비해 20% 증가했고,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1350억원, 790억원 손실에서 흑자로 전환했다.

LG필립스LCD 관계자는 “2006년 1/4분기 실적이 부진한 것은 예상보다 큰 폭의 수요 감소와 노트북 PC 및 모니터용 패널의 평균 판매가격이 크게 하락한 때문”이라고 설명했다.

1/4분기에는 매출액 기준으로 TV용 LCD 패널이 45%, 데스크톱 모니터용 패널이 30%, 노트북 PC용 패널이 20%, 기타 Application용 패널이 5%를 차지했다.

LCD의 m²당 평균 판매가격은 2005년 4/4분기 평균 대비 8% 하락한 1953달러에 그쳤으며, 면적기준 출하량도 전분기 대비 5% 감소한 127만4000m²을 기록했다.

1/4분기에 출하된 디스플레이 순면적 m²당 매출원가는 2% 감소한 180만원(1853달러)으로 집계됐다.

LG필립스LCD는 1/4분기에 7세대 공장인 P7과 P8 신·증축을 위해 8450억원을 시설투자했고, 총 생산능력(면적기준)은 7세대 라인의 생산능력 증대에 힘입어 7% 가량 증가했다.

LG필립스LCD의 론 위라하디락사 사장은 “2/4분기에는 LCD TV 부문의 지속적인 성장 및 P7의 생산성 향상에 힘입어 면적기준 출하량이 1/4분기 대비 20%대 중반에서 후반대의 성장을 기록할 것”이라고 전망했다.

또 “2/4분기 말에는 주로 모니터와 노트북용 패널 판매가격의 지속적인 하락의 영향으로 평균 판매가격이 1자리수대 중반에서 후반의 하락률을 기록할 것”으로 예상했다.

아울러 설비투자 규모와 관련해 “2005년 4/4분기 기업설명회에서 발표한 것과 동일한 수준인 4조2000억원 수준일 것”이라고 덧붙였다. (서울=연합뉴스) <저작권(c)연합뉴스-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06/04/13>